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09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목 차

CONTENTS

주요 조사결과

.....

4

1. 현안 조사

.....

7

2. 국정 지표

.....

13

3. 조사 개요

.....

22

2018년 9월 주요 조사결과



현안조사 : 병역특례제

-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특례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제도의 존재 여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병역특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는 다소 상반되게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여전히 병역특례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익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세간의 주장과 달리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도 **60%**로 나타나 온라인 상에서 높아진 반대 여론보다는 상대적으로 병역특례제에 우호적인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특혜의 대상이 된 선수 중 일부에 대한 반감은 조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 선발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이던 야구대표팀의 경우 특혜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에 불과한 반면, 축구와 그 외 종목 금메달리스트는 각각 **69%, 71%**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성과 못지 않게 중시하는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사그라들 줄 모르고 커져가던 병역특례 논란은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국위선양이 병역특례제의 존재 이유라면 체육 및 순수 예술계로만 국한했던 혜택을 대중예술계, 그 중에서도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업적을 달성한 방탄소년단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로 드러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대상 지정에 대한 찬성 비율은 **40%**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병역특례제를 확대한다면 어떤 분야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대중예술(**23%**)보다는 과학기술 분야(**54%**)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부처 합동 TF팀을 출범시켜 병역특례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병역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찬반 입장을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대안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개선안 중에서는 ‘복무 시점 연장 및 재능 기부’에 대한 찬성(**6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용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만 어떠한 개선안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데다 오랜 기간 동안 잠음을 일으키던 문제인 만큼 개선안의 확정까지는 충분한 숙고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정책 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5%로 전월(62%) 대비 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6월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
- 리더십 평가에서도 6가지 항목(원칙과 소신, 소통, 민생 안정, 위기상황 대처, 통합 노력, 공직 인사) 모두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모든 차원에서 긍정평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10개 정책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북 정책’의 긍정 평가가 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60%), ‘보건 의료 정책’(58%), ‘사회 안전 대책’(53%), ‘복지 및 분배 정책’(52%), ‘환경 정책’(47%), ‘교육 정책’(39%), ‘저출산, 고령화 대책’(32%), ‘주거 및 부동산 정책’(30%), ‘일자리 및 고용 정책’(30%)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거 및 부동산 정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은 긍정평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경제인식지수는 -42로 지난 달(-40) 대비 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올해 5월 이후 경제인식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21로 지난 달(+24) 대비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영남권,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6월 이후 안보인식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현안조사
병역특례제

01

현안조사

1) 병역 특례제는 과연 필요한가

병역특례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4%

예술·체육계 소수 인원에게 사실상의 병역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병역특례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64%가 '필요(매우 필요하다 12%, 필요하다 53%)' 하다고 답했다. 사회 전반에서 병역특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병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0%로 여성(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별로는 30~39세부터 60세 이상까지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0% 전후로 고르게 분포하는데 19~29세는 81%로 병역특례제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Q

귀하께서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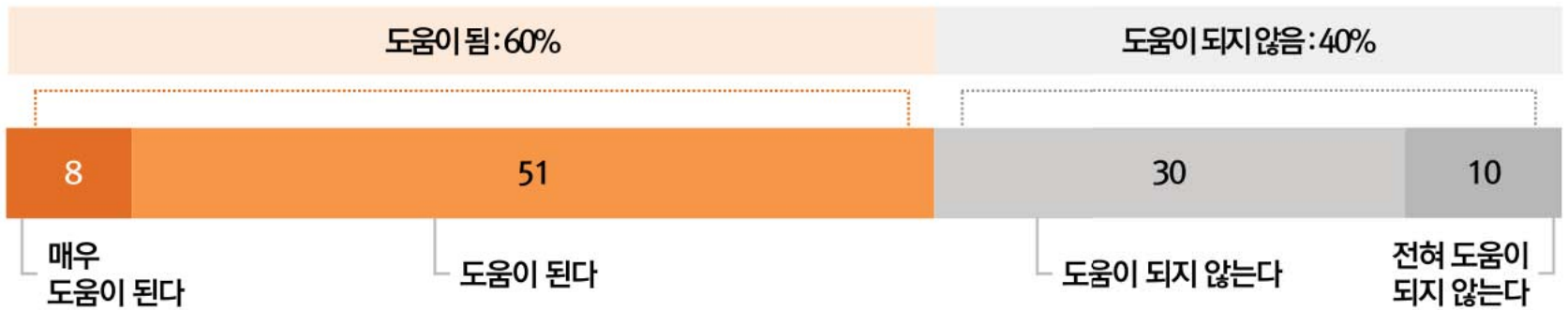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①+② 필요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불필요	계
전체	(1,000)	12	53	64	25	11	36	100
성별								
남자	(497)	13	47	60	25	14	40	100
여자	(503)	10	58	68	24	8	32	100
연령								
19-29세	(175)	20	61	81	10	9	19	100
30-39세	(173)	10	55	65	23	11	35	100
40-49세	(203)	12	49	61	28	11	39	100
50-59세	(201)	9	52	60	30	10	40	100
60세 이상	(248)	8	49	57	29	14	43	100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60%**

병역특례제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이러한 도입 취지에 부합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8%, 도움이 된다 51%)고 답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유사한 수준의 응답자가 국익에의 도움 여부도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실제 응답 결과는 불거진 병역특례제 무용론과 다른 양상을 띈다.

Q 귀하께서는 병역 특례 제도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01

현안조사

2) 논란의 중심, 야구대표팀과 BTS

야구대표팀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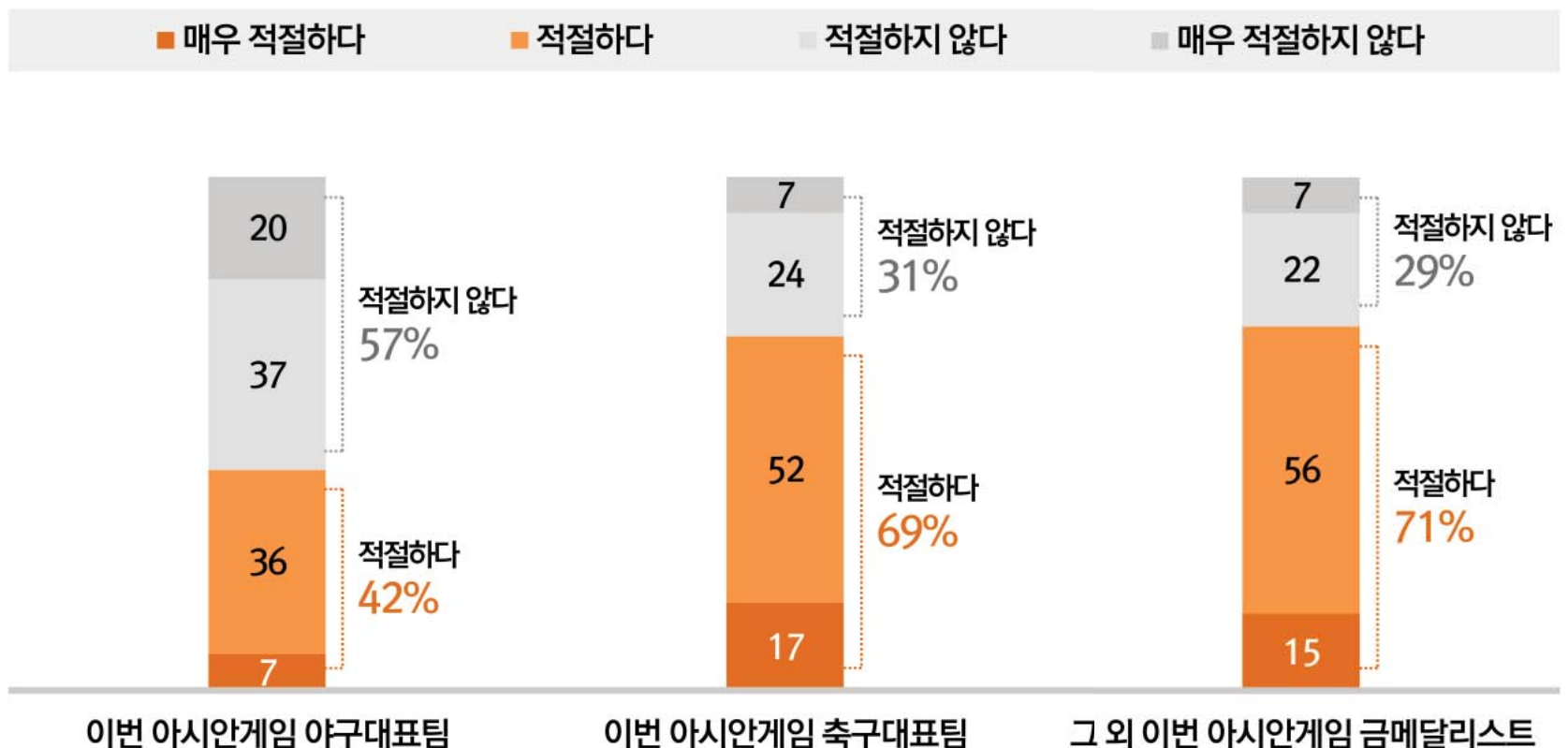
지난 제 18회 아시안게임에서는 야구대표팀의 병역 특혜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났다.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선수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비판 때문인데, 종목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특혜의 적절성 응답 결과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야구대표팀이 병역 특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42%(매우 적절하다 7%, 적절하다 36%)만이 적절한 처사라고 답한 반면, 축구와 그 외의 종목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진 병역 특혜에 대해서는 각각 69%와 71%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그 차이가 약 30%에 육박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금메달 획득이라는 결과만으로 병역 특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민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Q 귀하께서는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개인 또는 집단이 병역 특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BTS의 병역 특혜 지정에
대해서는 60%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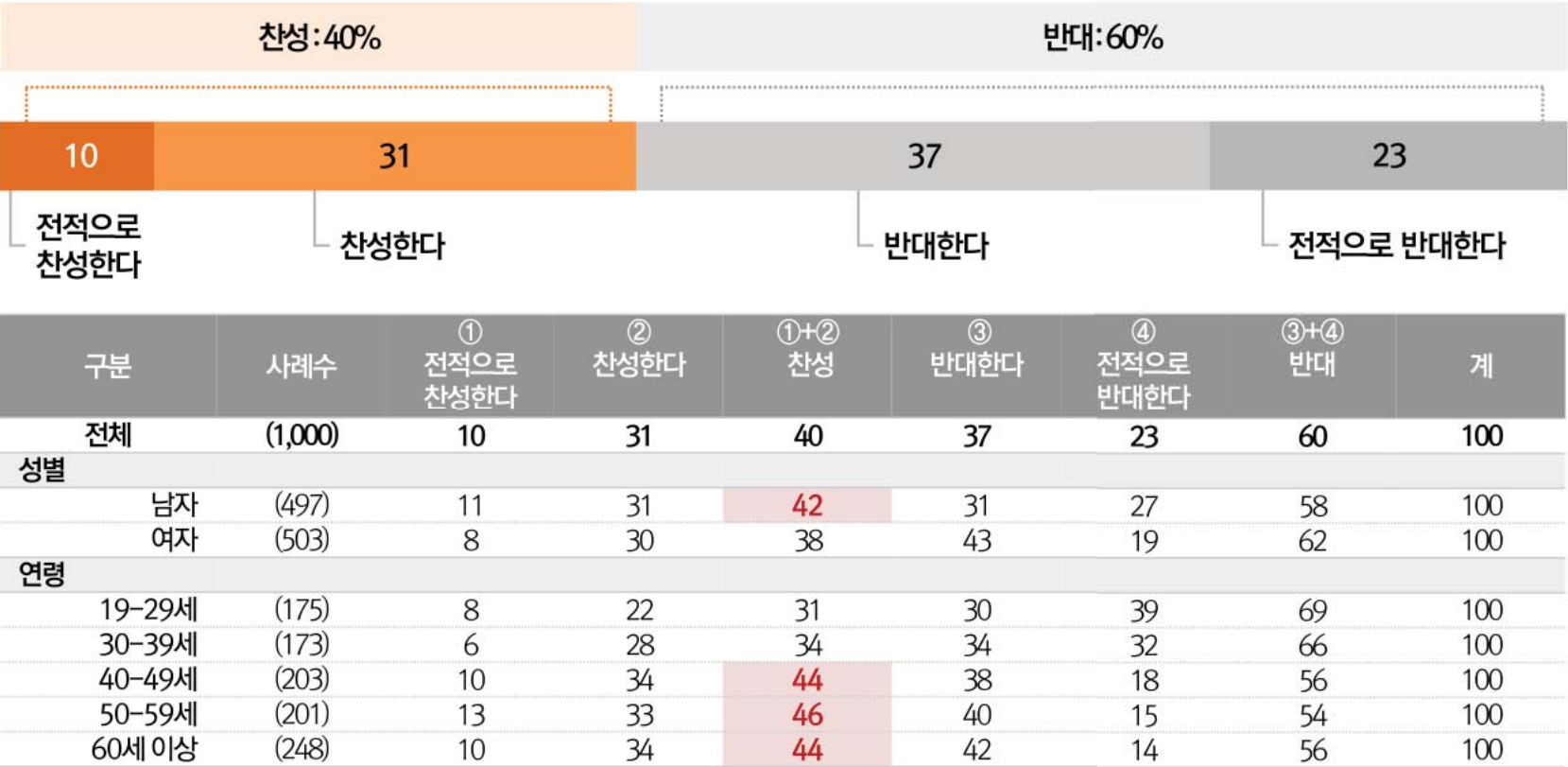
국위선양을 한 인물에게 병역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한글 노래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며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대상 지정에 대한 찬반 여부 응답 결과로는 찬성(40%)보다 반대(60%)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병역 특혜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38%)보다 남성(42%)의 찬성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도 39세 미만의 저연령대보다 40세 이상의 고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Q 국위 선양을 한 인물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방탄소년단도 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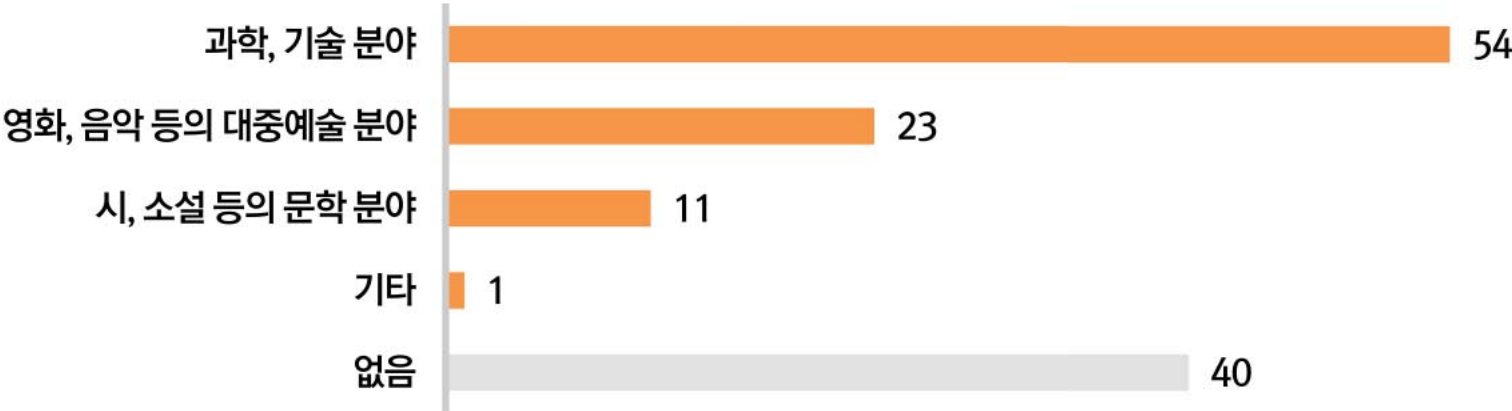


병역특례제를 확대한다면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가
되어야

체육과 순수 예술 분야에 국한된 병역특례제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과학·기술 분야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다. 대중예술 분야(23%)나 문학 분야(11%)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노벨상 등 분야를 막론한 각종 유명 대회 수상자 등이 있었다.

Q 귀하께서 현재 병역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분야 이외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모두 골라 주십시오

(N=1,000, %)



01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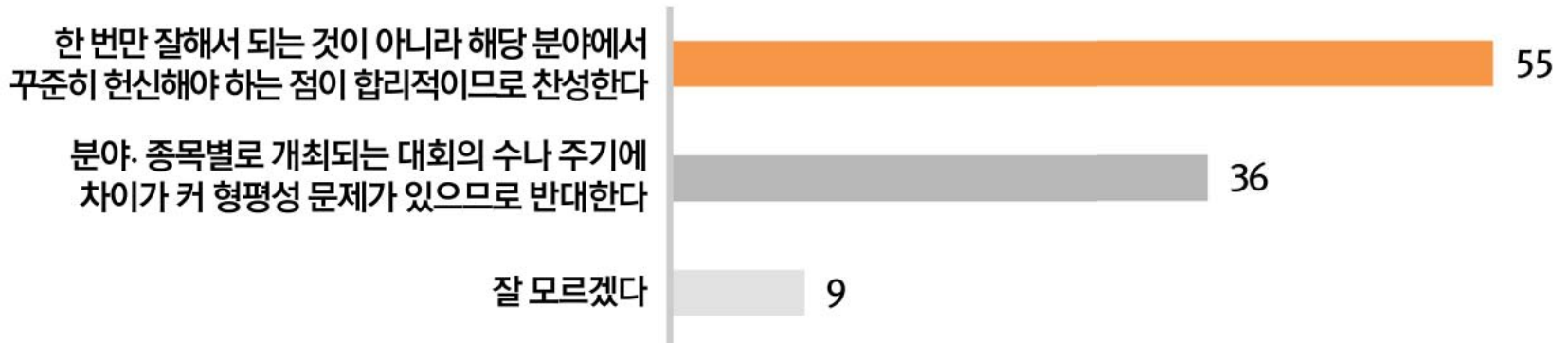
3) 병역특례제 개선에 대한 의견

병역 마일리지 제도는
과반이 찬성

병역특례제의 현실적 개선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병역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과반(55%)이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헌신해야 하는 점이 합리적이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야 및 종목별 기회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6%였다.

Q 귀하께서는 병역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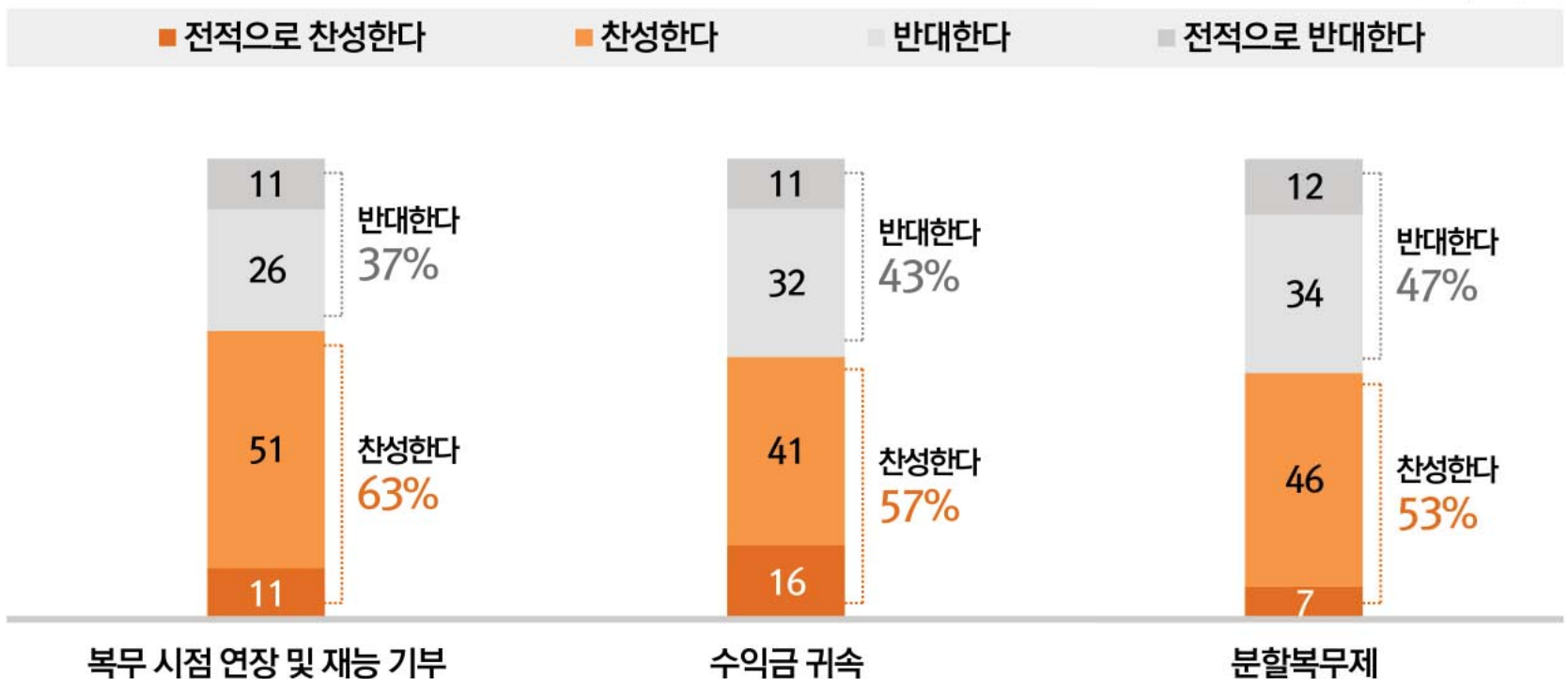
기타 대안으로는
'복무 시점 연장 및
재능 기부'에 대한 찬성이
가장 높아

병역 마일리지 제도 이외의 다양한 병역특례제 개선 의견 중에는 '복무 시점 연장 및 재능 기부'가 63%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분야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되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 정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이다.

병역특례는 유지하되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하거나 국가에 헌납하는 '수익금 귀속'에는 57%, 비시즌을 활용하여 군 복무를 나누어 이행하는 '분할복무제'에는 53%가 각각 찬성했다.

Q 귀하께서는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국민청원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5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5%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39%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7%포인트(62% → 55%) 하락하였다. 6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대비 7%p 하락
6월부터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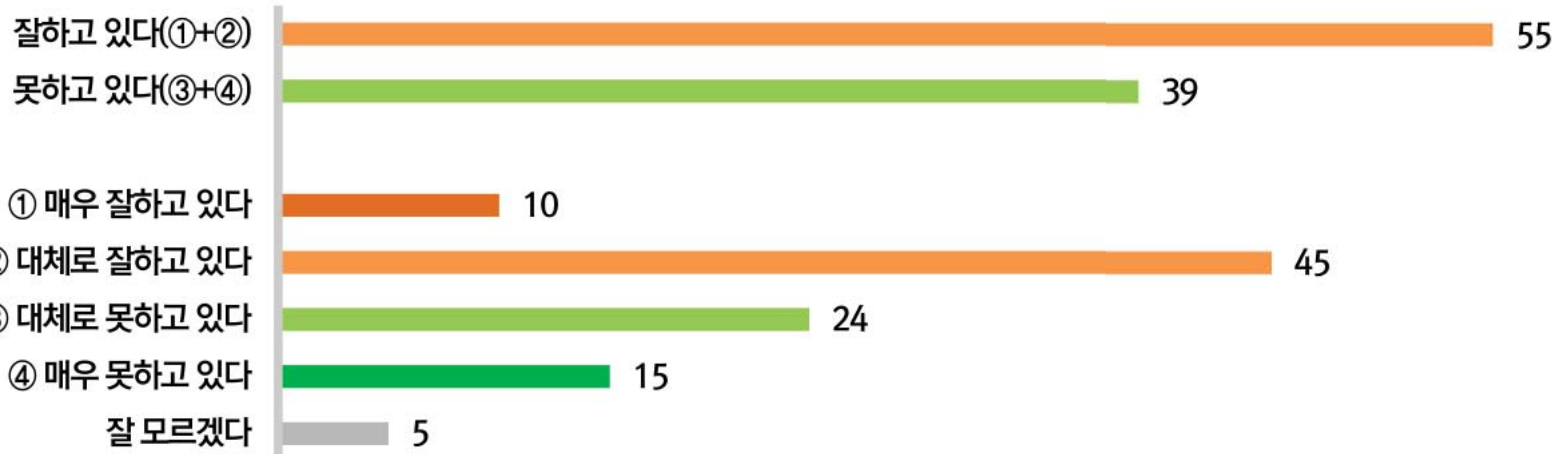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57%, 30대 63%, 40대 65%, 50대 58%, 60세 이상 39%이며, 60세 이상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 57%, 인천/경기 53%, 대전/세종/충청 52%, 광주/전라 83%, 대구/경북 47%, 부산/울산/경남 50%이며, 지난달 대비 인천/경기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81%, 중도 53%, 보수 31%로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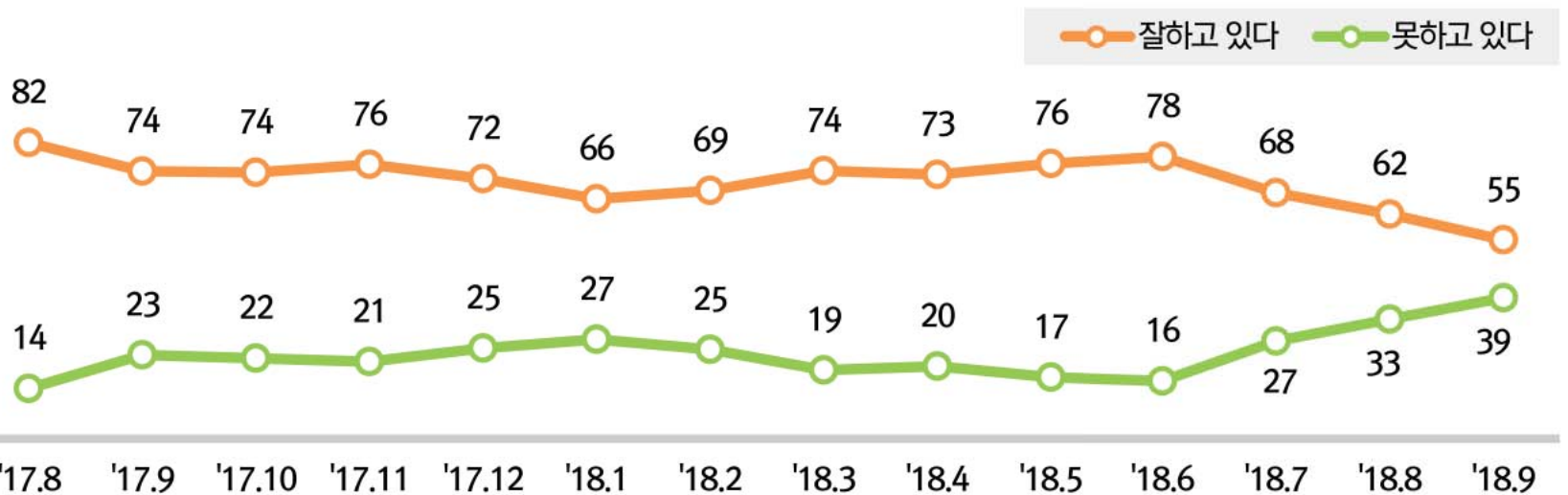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55%, 못하고 있다 39%

(N=1,000, %)



지난달 대비 7%포인트 하락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7
19-29세	67	74	73	78	81	80	70	65	57	-8
30-39세	77	81	81	87	85	85	72	68	63	-4
40-49세	78	77	88	82	83	87	76	71	65	-6
50-59세	66	71	76	70	80	72	68	64	58	-6
60세 이상	48	47	58	56	59	70	55	48	39	-9

지난달 대비 인천/경기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7
서울	60	68	74	69	76	78	69	57	57	0
인천/경기	68	71	76	77	79	79	69	67	53	-14
대전/세종/충청	72	66	73	73	74	74	67	56	52	-4
광주/전라	84	85	90	87	91	91	86	84	83	-1
대구/경북	60	62	59	60	62	69	50	50	47	-3
부산/울산/경남	62	59	71	71	76	77	62	57	50	-7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66	69	74	73	76	78	68	62	55	-7
진보	88	88	93	93	94	95	93	87	81	-6
중도	70	73	74	73	81	76	69	55	53	-2
보수	41	47	51	48	50	59	36	41	31	-10

02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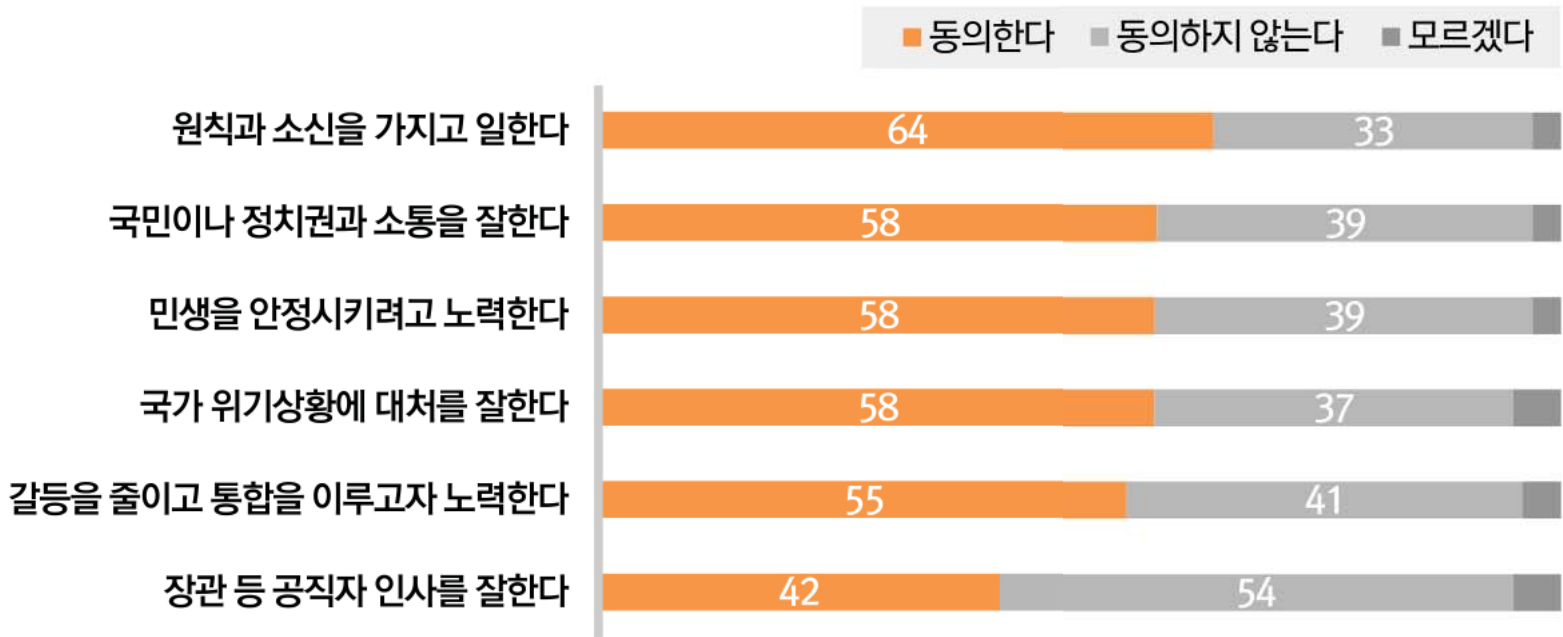
리더십 관련 모든 차원에서
6월 이후 하락세 지속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 평가가 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통(58%), 민생 안정(58%), 위기상황대처(58%), 통합 노력(55%), 공직인사(42%)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하였다. 6월을 기점으로 모든 차원에서 긍정평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 하락

(N=1,000, 동의한다%, %p)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72	72	78	74	78	81	75	70	64	-6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69	68	72	71	72	74	67	64	58	-6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73	69	71	73	71	69	66	63	58	-5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59	62	70	71	73	73	65	60	58	-3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62	62	66	68	67	68	64	61	55	-6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2	51	57	51	55	59	52	48	42	-6

02

국정지표
3) 정책 평가

대북 정책이 가장 높고,

주거 및 부동산 정책,
일자리 고용 정책이
가장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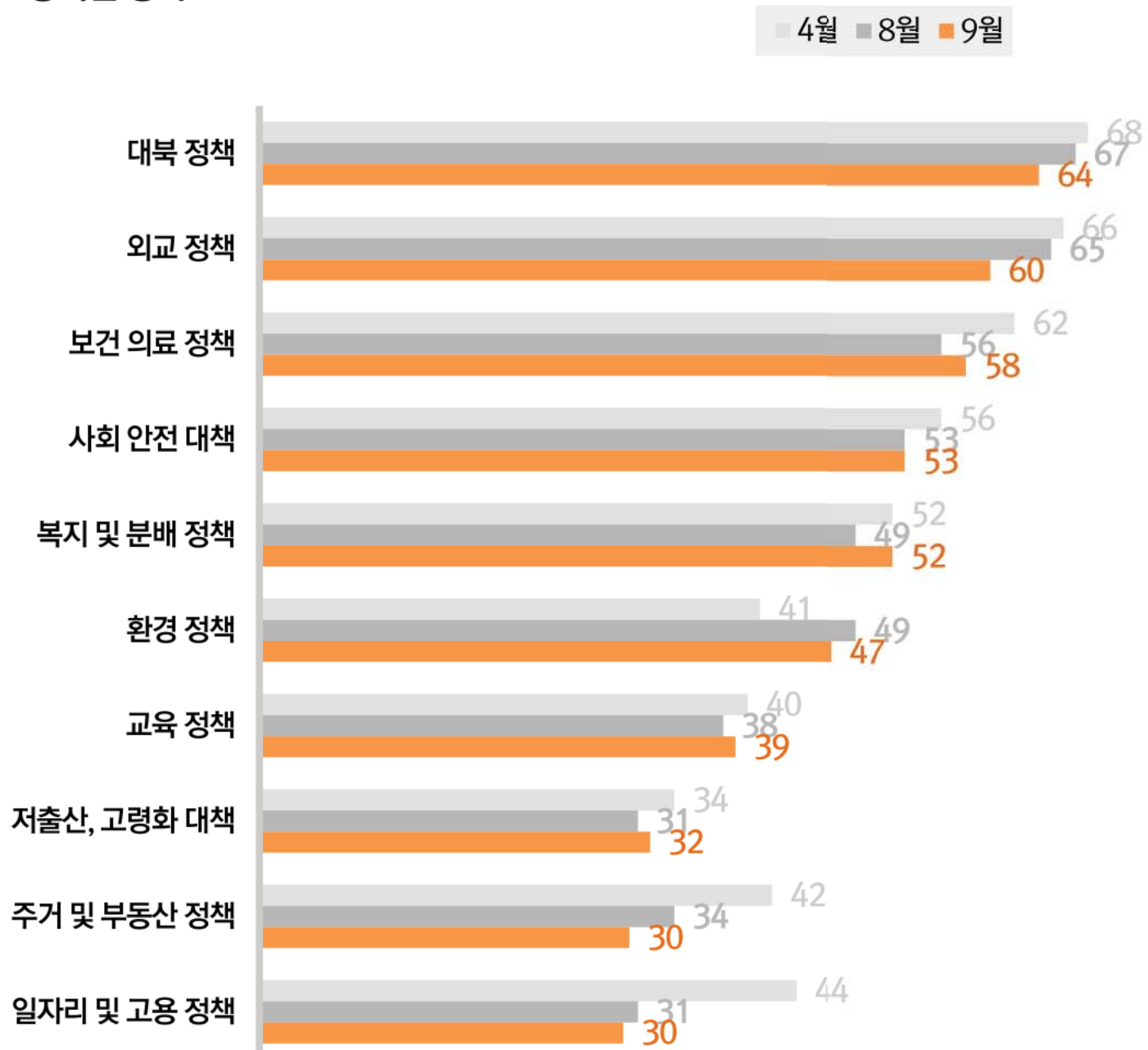
주요 10개 정책별로 실행에 대한 평가(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하였다.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정책은 '대북 정책'(64%)이었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60%), '보건 의료 정책'(58%), '사회 안전 대책'(53%), '복지 및 분배 정책'(52%), '환경 정책'(47%), '교육 정책'(39%), '저출산, 고령화 대책'(32%), '주거 및 부동산 정책'(30%), '일자리 및 고용 정책'(30%) 등의 순이었다.

주거 및 부동산 정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은 긍정평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0개 주요 정책별 평가

(N=1,000, 잘하고 있다%)



02

국정지표

4) 국가 경제 인식

국가경제 인식지수
-42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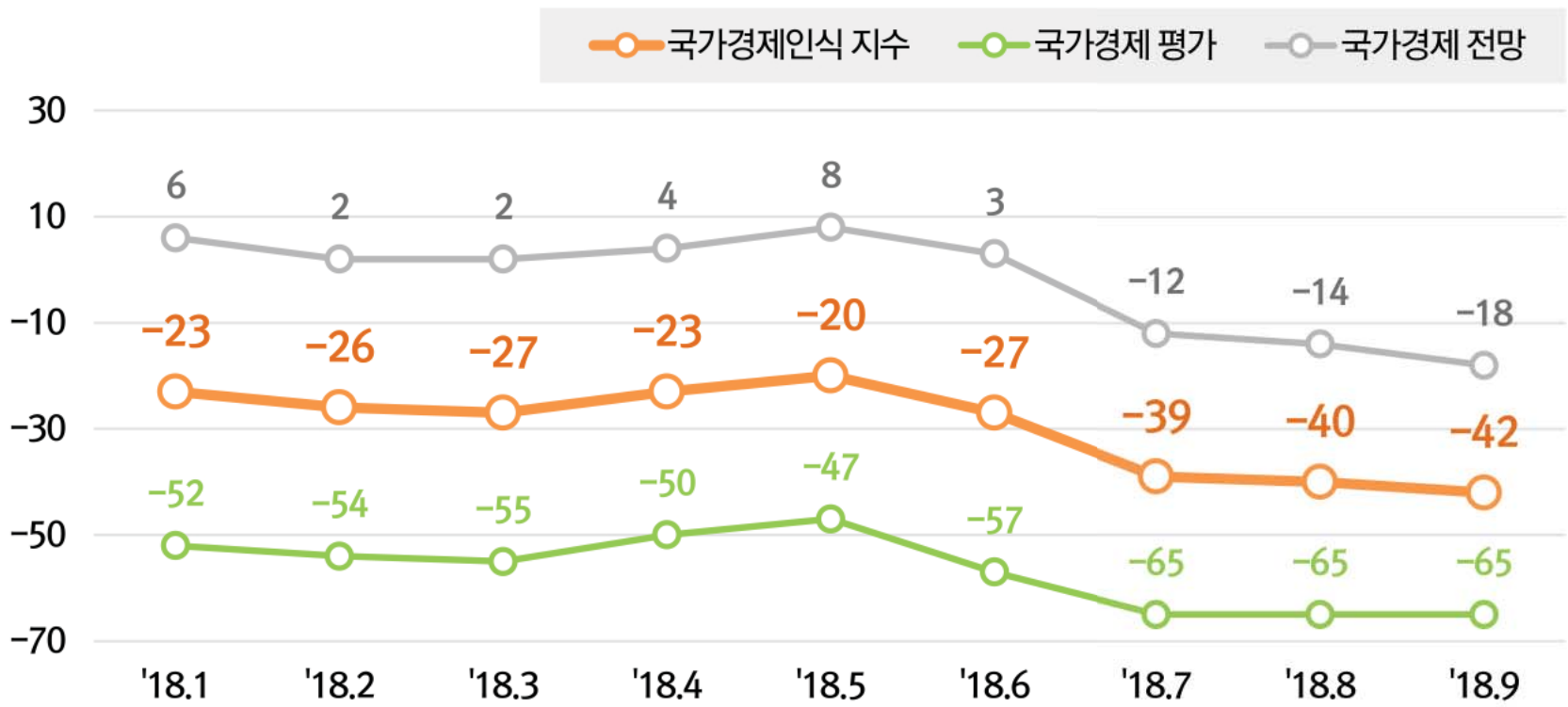
지난달 대비
2포인트 하락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42로 지난달(-40) 대비 2포인트 하락하였다. 5월 이후 경제 인식 지수가 하락세에 있다.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5%	24%	70%	1%	100%	-65(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24%	31%	42%	3%	100%	-18(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42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포인트 하락 (N=1,000,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2
19-29세	-25	-16	-20	-16	-20	-27	-26	-39	-35	+4
30-39세	-12	-20	-17	-8	-9	-19	-33	-30	-34	-4
40-49세	-12	-13	-16	-23	-7	-11	-34	-32	-34	-2
50-59세	-26	-29	-30	-30	-20	-36	-44	-43	-40	+3
60세 이상	-36	-46	-45	-34	-40	-40	-52	-53	-59	-6

지난달 대비 인천/경기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2
서울	-25	-25	-28	-28	-17	-35	-35	-48	-46	+2
인천/경기	-25	-27	-22	-20	-20	-26	-39	-34	-41	-7
대전/세종/충청	-22	-31	-23	-22	-30	-18	-35	-41	-35	+6
광주/전라	-4	-7	2	-1	+3	+3	-15	-20	-13	+7
대구/경북	-32	-31	-49	-38	-33	-38	-50	-58	-55	+3
부산/울산/경남	-22	-31	-44	-27	-23	-39	-54	-46	-49	-3

지난달 대비 자영업자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27	-39	-40	-42	-2
자영업	-31	-35	-37	-41	-37	-32	-51	-49	-62	-13
판매/영업/서비스	-24	-16	-23	-21	-13	-38	-32	-38	-35	+3
생산/기능/노무	-13	-22	-12	-22	-13	-16	-39	-31	-33	-2
사무/관리/전문	-19	-22	-15	-6	-13	-21	-38	-39	-33	+6
주부	-32	-35	-31	-29	-24	-35	-45	-45	-49	-4
학생	-10	-11	-30	-26	-21	-31	-34	-40	-50	-10
무직/퇴직/기타	-19	-27	-35	-26	-20	-22	-31	-39	-41	-2

02

국정지표
5) 국가 안보 인식국가안보 인식지수
+21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지난달 대비
3포인트 하락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21으로 지난달(+24) 대비 3포인트 하락하였다. 6월 이후 안보 인식 지수가 하락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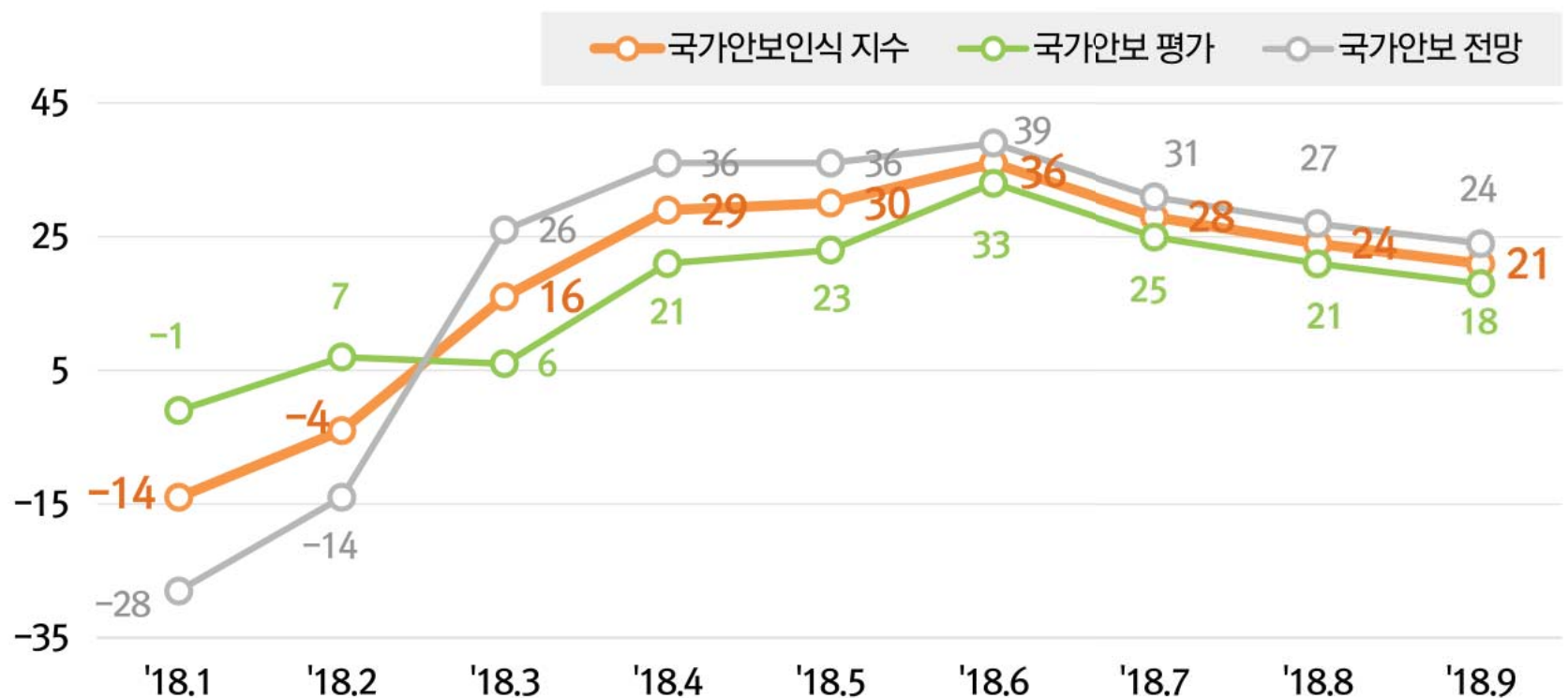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40%	36%	22%	3%	100%	+18(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것- 나빠질것 (c-d)
	43%	34%	19%	4%	100%	+24(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1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

(N=1,000,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2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3
19-29세	-8	+10	+18	+35	+30	+28	+36	+28	+18	-10
30-39세	+2	+9	+25	+35	+38	+33	+39	+28	+24	-4
40-49세	+3	+10	+36	+36	+43	+58	+46	+41	+39	-2
50-59세	-18	-1	+18	+29	+34	+40	+26	+27	+30	+3
60세 이상	-42	-37	-9	+15	+10	+23	+1	+2	-1	-3

지난달 대비 인천/경기, 영남권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3
서울	-24	-10	+15	+29	+31	+34	+33	+21	+22	+1
인천/경기	-14	-3	+23	+35	+31	+38	+28	+29	+22	-7
대전/세종/충청	-11	-13	+20	+24	+25	+35	+36	+18	+24	+6
광주/전라	+8	+24	+42	+49	+60	+54	+52	+47	+51	+4
대구/경북	-29	-5	-15	+8	+10	+20	+5	+12	+5	-7
부산/울산/경남	-11	-9	+4	+23	+30	+33	+14	+19	+12	-7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36	+28	+24	+21	-3
진보	+16	+28	+51	+63	+63	+71	+70	+62	+62	0
중도	-10	-6	+11	+22	+32	+29	+27	+15	+15	0
보수	-52	-36	-20	-7	-11	-1	-20	-10	-18	-8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8년 8월 기준 약 43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8,414명, 조사참여 1,356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1.9%, 참여자 대비 73.7%, 유효 참여자 대비 86.3%)
조사일시	• 2018년 9월 14일~17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